

“찬바람 불면 배당주” 옛말… 채권·예금으로 투자금 몰린다

연말 대표 투자처 ‘배당주’ 관심 ↓
원화 강세로 수출기업 실적 둔화 우려
증권가 “배당주 방어력 주목해야”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연말이면 배당주가 주목받는다. 하지만 올해는 투자자의 관심이 예년 같지 않다. 금리가 오르면서 예금·채권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데다, 원화값이 뛰면서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점증하면서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 탓이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월들어 코스피 고배당50 지수 수익률은 -1.84%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1.09%)과 코스피200(1.71%), 코스피50(2.44%) 상승률을 밑돌았다. 코스피 고배당50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 중 배당수익률(주가 대비 배당금의 비율)이 높은 상위 50개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다. 삼성전자·현대차·KB금융·신한지주·SK텔레콤·KT 등이 편입돼 있다.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 연 4% 근접
배당주의 인기를 시들하게 만든 건 예금과 채권이다. 17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1년) 금리는 3.3~3.45% 수준이다. 우리은행의 ‘우리 첫거래우대 정기예금’ 금리는 1년 이상 2년 미만 기준 최고



연말이면 주목받던 배당주의 관심이 시들하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3.8%로 연 4%에 근접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공시된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지난 6월 1일 연 3.32%에서 7월 31일 3.81%로 0.49%포인트 뛰었다. 7월 말 당시 우대금리를 포함해 연 4% 이상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은 113개로 전체 312개 상품의 36.2%를 차지했다. 최고금리는 연 4.20%까지 올라갔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잔액은 1010조3722억원으로 이달 들어 5조1403억원 증가했다.

채권도 개인 투자자의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9월들어 18일까지 개인 투자자의 채권 순매수액은 2조8571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2조6677억원 보다 많다. 채권금리가 오르면서 3년 국고채 연평균 수익률은 코스피 배당수익률을 웃돈다. 지난해 코스피 예상 배당수익률은 2.63%인데 비해 국고채 금리의 연평균 수익률은 3.55% 수준으로 1%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난다.

여기에 원화값이 뛰면서 실적 둔화가 우려되는 점도 배당주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다. 유가증권시장 영업이익의 컨센

서스는 990조원 안팎이다. 2분기 평균 1502원대였던 환율은 3분기 1420원대로 약 5% 떨어졌다. 환율이 하락하면 반도체와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수출주에 부담을 준다. 배당으로 나눠줄 이익이 줄어든다면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방어주 관점 접근”…주가가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증권가에선 ‘방어주’ 관점에서 배당주를 매수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이 배당금을 추정한 종목 중 올해 예상 배당수익률이 5% 이상인 종목은 총 29개사다. 올해 예상 배당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지역난방공사(8.69%)다. 이어 AJ네트웍스(8.33%), NH투자증권(7.99%), 삼성증권(7.98%), 웹젠(7.96%), SOOP(7.27%), 제일기획(7.23%), 키움증권(7.15%), 한국금융지주(6.84%) 등 순으로 예상 배당수익률이 높았다.

유진투자증권은 9월 보고서에서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배당을 늘렸고, 최근까지 실적 흐름이 양호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 않고, 현재 주가 기준 배당수익률이 4% 이상인 종목으로 오리온홀딩스와 에스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다우기

술, 포스코인터내셔널, 키움증권 등을 제시했다. 금융주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승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가 높은 국면에서 퀄리티 주식이 유리하다”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때 배당 매력에 따른 하방 지지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배당주에 투자할 때 기본적으로 예상 배당수익률을 고려해야 하지만, 기업의 이익 개선세, 배당성향과 주가 흐름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조언한다.

배당수익률은 주당배당금(DPS)을 현재 주가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배당금이 그대로여도 실적 악화로 주가가 떨어지면 높아질 수 있어서다. 예를 들어 1만원이던 주식이 5000원으로 떨어지면 같은 500원의 배당금을 줬다 배당 수익률은 5%에서 10%로 올라갈 수 있다.

유성만 리딩투자증권 연구원은 “DPS 증가에 따른 고배당은 주주환원 강화의 결과로, 고배당을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다만 높은 수준의 배당 수익률이 주가 급락에 따른 펀더멘털(기초체력)의 훼손인지, 지수 하락에 따른 단기적 이슈인지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국내 증시 주춤하자 해외 ETF 다시 뜬다

올해 출시 해외 기반 ETF 32개
하반기 해외형 비중 13.3%p 증가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하는 자산운용사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18일까지 출시된 ETF 137개 중 기초자산이 해외에 기반한 ETF(국내+해외 포함)는 32개(30.88%)로 집계됐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보면 1~6월 상장된 ETF 99개 가운데 해외형 ETF는 27개(27.2%)였으나, 7월 이후 하반기 출시 상품 37개 중 15개(40.5%)가 해외형이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 들어 해외형 ETF 출시 비중이 13.3%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1년간 출시된 ETF 168개 가운데 해외형은 109개(64.8%)였다. 특히 코스피가 급등하기 전인 작년 상반기에는 72개 출시 상품 중 59개(81.9%)가 해외형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 코스피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운용사들은 국내 ETF를 앞다퉈 내놓기 시작했다.

이에 작년 하반기 상장된 96개 ETF 중 국내형은 46개, 해외형은 50개(52.0%)로 해외형 비중이 낮아졌고 코스피가 사상 처음 9,000선을 돌파했던 올해 상반기에는 그 비중은 30% 아래까지 떨어졌다.

코스피가 6월 말부터 내리막길을 타기 시작해 3개월째 6000대에서 등락하는 등 지지부진하자, 운용사들이 다시 미증시로 돌아타고 있는 셈이다.

이달 들어서는 새로 출시된 9개 ETF 가운데 4개가 해외형(44.4%)이었다.

NH-아문다자산운용은 지난 15일 에이전틱 AI(인공지능) 관련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HANARO 미국에이전틱AI TOP2+ETF’를, 삼성자산운용은 미국 AI 메모리·데이터 저장장치 관련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KODEX 미국AI메모리TOP2플러스’ ETF를 상장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앞서 지난 8일 미

국 대표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 미국 단기국채에 절반씩 투자하는 ‘TIGER 미국S&P500미국채혼합50ETF’를, KB자산운용은 글로벌 낸드(NAND) 메모리 밸류체인 기업에 투자하는 ‘RISE 글로벌AI낸드메모리반도체 ETF’(국내+해외)를 지난 1일 출시했다.

이 같은 해외형 ETF 확대는 미 증시 상승의 영향으로 해외형 ETF의 순자산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국내형은 코스피 지수 등의 영향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상장된 ETF 가운데 순자산 1,2위는 국내형인 KODEX 200[069500]과 해외형인 TIGER 미국S&P500으로, 지난 6월 말 순자산은 28조8248억원과 20조332억원으로 8조원 이상의 격차가 났다.

그러나 지난 17일 기준 KODEX 200의 순자산은 14.4% 줄어든 24조6483억원, TIGER 미국S&P500은 2.5% 떨어진 20조5459억원으로 두 ETF의 격차는 4조1000억원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허정윤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허위·과장된 투자권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 전 회사 정보와 투자권유자의 실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상장 임박”… 비상장주식 투자권유 주의보

금감원 Q&A

“공시자료 직접 확인해야”

“곧 나스닥에 상장됩니다. 지금 사두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대표적인 투자 권유 문구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재무상태나 실제 상장 준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했다는 주식을 되팔지 못해 자금이 장기간 묶이거나 큰 손실을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비상장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허위·과장된 투자권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 전 회사 정보와 투자권유자의 실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은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입니다. 상장주식보다 공시되는 정보가 적어 회사의 재무상태나 사업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악용해 신기술 개발이나 신사업, 해외 증시 상장계획 등을 부풀려 투자자를 유

인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시점에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장외거래 플랫폼이 있더라도 거래량이 적으면 주식을 팔기 어렵고 직접 매수자를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대했던 상장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투자금이 장기간 묶이거나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 전에는 먼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회사명을 검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매출과 당기순이익, 사업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명 이상을 대상으로 투자권유가 이뤄지고 있는데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위법한 투자권유를 의심해야 합니다.

투자를 권유한 업체의 실체도 확인해야 합니다. 유명 금융회사와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무인가 업체일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FINE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조회하고, 벤처캐피탈을 내세운다면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정윤 기자

AI 수익화 기대에 美 소프트웨어주 반등

신한운용 ETF 6개월 수익률 32%

신한자산운용은 ‘SOL 미국AI소프트웨어ETF’가 지난 17일 기준 최근 6개월 수익률 31.88%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미국 증시에서는 고유가와 고금리 부담으로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가 업황 사이클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으면서 구독 기반의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인공지능(AI) 투자 흐름이 인프라 구축에서 실제 서비스와 업무 활용 단계로 이동하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가 커지고 있다. AI 사이버보안 분야는 AI 활용 확대에 따른 보안 위협 증가와 맞물려 기업들의 지출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로 꼽힌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그룹장은 “AI 투자의 무게중심이 인프라 구축에서 실제 활용 단계로 이동하면서 소프트

웨어 기업 전반의 실적과 주가가 개선되고 있다”며 “특히 AI 사이버보안 관련 종목들이 뚜렷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소프트웨어주의 최근 반등 배경으로는 이른바 ‘SaaS Apocalypse(사스포칼립스)’ 우려 완화도 거론된다. 그동안 AI가 기존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에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AI를 실제 매출로 연결하는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관련 우려가 한층 누그러졌다는 것이다.

/김아영 기자 aykim@